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며 '종전선언 천만 서명' 운동에 캐나다. 연합교단이 연대하여 주심에 위로와 격려를 얻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 가운데 캐나다 연합 교단과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에베소서 2: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의 여성으로 한국전쟁의 깊은 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는 평화를 노래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의 소식과 피해 아동들과 여성들과 난민 소식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으로 여겨집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아픔은 70 여 해를 지나면서 정치·경제·문화·예술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고난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분단 현실의 한국교회의 여성 목회자로서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모든 모순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평화를 구하는 치유와 회복의 자리 또한 한반도에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다양한 시도의 평화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월요평화통일 기도회, 종전선언 캠페인, NGO 단체들과 더불어, 남북 교류사업에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평화통일 교육도 진행합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대선의 결과, 새로운 정권의 인수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의한 남북 화해 협력을 지양했던 평화통일 운동의 전망이 어두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도, 깊은 구름장 위에도, 해가 '빛'나고 있는 것처럼 정오의 빛처럼 빛나기까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 의지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는 냉전체제로 회귀하는 듯합니다.

미·일 강화, 중·러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한반도 역시 실질적 전쟁의 위협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운동의 방향이 세상 열방들의 권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결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께 있음을 선포하며” 시편 31:15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과 역사의 섭리자로 믿고 전적으로 의탁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셨고 행하신다는 것은, 주께서 그의 의지와 목적대로 구원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는 평화를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하게 주려오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평화운동은 세상의 열방들이 소동하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의 시기가 올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 길에 캐나다 연합교회가 함께 함을 기뻐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5:9